

동포 여러분, 우리 서로 칭찬합시다!

사할린주
사회정치신문

Общественно-
политическая газета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새고려신문

СЭ КОРЕ СИНМУН (НОВАЯ КОРЕЙСКАЯ ГАЗЕТА)

2022년 2월 25일(금)

...(음력 1월 25일)...

Пятница

25 февраля 2022г.

№ 7 (11974)

1949년 6월 1일 창간

Цена свободная



▲ 2월 23일 - 러시아 조국 수호자의 날, 유즈노사할린스크시 <슬라와(영예)>광장에서 알레리 리마렌코 주지사를 비롯해 주·시 정부 관계자, 군사, 사회단체 대표, 시민 등이 성화에 헌화했다. (이예식 기자 촬영)

존경하는 사할린과 쿠릴 주민 여러분!

조국수호의 날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러시아를 위해 일하시고, 자신의 용맹스런 공로로 우리에게 있어 너무 소중한 것들인 조국의 영토와 친지들, 문화적, 정신적 가치를 지켜주신 분들에게 감사드립니다.

여러분들은 수세기에 걸친 역사 속에 국가를 지켜온 영웅다운 일을 계속 이어가고 계십니다. 제2차 세계대전 시기에 보여준 우리 국민의 혁혁한 공로는 가장 빛나는 용맹스러움과 굳건한 정신의 모범 중 하나입니다.

바로 그 결과 75년 전에 현재 국경의 사할린주가 형성되었고, 이후로 사할린 지역은 발전을 위한 중대한 일을 이뤄왔습니다.

사할린과 쿠릴열도에서 우리 전후방 공로자들의 노력으로 도시와 마을이 개선되고, 새로운 기업들이 생기고, 여러 분야에서 성과를 거두게 되었습니다.

현재 우리는 사할린에서의 생활이 더욱 편안해지도록 조성하고 있으며, 자신있게 미래를 향해 지속적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존경하는 국가 수호자 여러분들은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주고 계십니다.

이는 우리 국경 지역을 위해 특별히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세우신 목표가 다 성취되길 바라며, 평화와 강건함과 번영을 기원합니다!

조국수호의 날을 축하드립니다!

알레리 리마렌코 사할린 주지사

사할린에서 훈련을 한 패럴림픽 선수들, 푸틴 대통령과 화상통화

2022베이징 패럴림픽에 출전할 러시아 스키와 스노보드 국가대표팀들이 경기를 앞두고 사할린에서 마지막 단계의 훈련을 마쳤다. '고르니 위즈두흐'스포츠관광단지에서 이들의 전지 훈련 장소가 되어 대표단은 코치, 선수, 지원 전문가 등 36명으로 구성되었다. 그중에는 여러 해에 걸쳐 패럴림픽에서 우승한 선수들뿐만 아니라 여러 선수권대회의 챔피언들도 포함돼 있다.

지난 22일(화)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이 베이징 패럴림픽을 앞두고 훈련 마지막 단계를 밟고 있는 러시아 패럴림픽 참가 선수들과 화상으로 대화를 나눈 가운데 푸틴 대통령이 선수들에게 격려의 말을 전했다.

"패럴림픽에서 선수들이 늘 우리에게 불러일으키는 긍정적인 활기찬 정서와 감동의 힘은 특별하다. 매번 여러분의 경기를 지켜보며 장애를 극복할 뿐 아니라 스포츠에서 높은 성취도로 삶의 의미와 희망을 찾기 위해 인간에게 어떤 의지와 성품이 필요한지 볼 때마다 놀라움을 금할 수 없다. 무엇보다 여러분과 함께 할 팀과 스포츠에 대한 열정과 승리의 모범이 되어주심에 감사드리며, 수많은 사람들에게 자신감과 희망을 주는 여러분의

목표지향적 자세와 출전 능력은 가능성의 한계를 확장시키고 있다."고 격려했다.

알렉산드르 나자로브 패럴림픽 스키 팀 수석코치는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이 러시아 패럴림픽 스포츠에 관심을 가지고 가장 중요한 대회에 앞서 직접 선수들에게 큰 힘이 될 격려의 말에 대해 감사를 표했다.

"사할린에서 훈련할 수 있는 모든 여건이 조성됐고, 모든 것이 조화롭고, 훌륭했다. 훈련 참모들이 마지막 훈련지로 이곳을 택한 것은 아주 훌륭했다. 코치로서 세계 기준에 맞는 트랙을 찾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이 지역은 중국과 가까이 위치해 있어 설질까지도 여러 모로 비슷하다. 알레리 리마렌코 주지사와 사할린 주민들께 특별한 감사를 전하고 싶다. 모두가 우리를 따뜻하게 환영해주며 여러 면에서 도움을 주었다"고 알렉산드르 나자로브가 푸틴 대통령에게 전했다.

2022년 베이징 동계 패럴림픽이 2022년 3월 4일부터 3월 13일까지 열릴 예정이다. 러시아 패럴림픽 국가대표팀 선수들은 2월 24일까지 사할린에서 훈련 후, 25일 중국으로 떠난다.

단신

푸틴 대통령, 우크라이나에 대한 군사작전 선포

지난 24일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긴급 연설을 통해 우크라이나에 대한 전면적 군사작전을 선포했다. 타스통신에 따르면 대통령은 "더 이상 우크라이나의 위협을 용납할 수 없다."고 선포하고 "러시아의 결정적 행동 필요한 상황 됐다"며 "군사작전 전개를 선포하며 작전의 유일한 목표는 주민 보호"라고 말했다.

푸틴 대통령은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점령할 계획은 없다."면서도 "외국이 간섭할 경우 러시아가 즉각 보복할 것이며, 그들이 한 번도 본 적 없는 결과로 이어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미국과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병력의 개입을 견제하고 나섰다.

이에 앞서 22일(화) 푸틴 대통령이 상원에 러시아 영토 밖에서 군대를 사용할 수 있도록 요청했고, 상원은 참석 의원 153명 전원 찬성을 통해 파병안을 승인했다.

올해 영주귀국 대상 인원은 350명, 영주귀국은 10월 예정

<사할린동포 지원에 관한 특별법>의 2022년도 시행에 따라 3월 2일부터 영주귀국 및 정착 지원 사업 신청 접수가 진행될 예정이라고 지난 22일(화) 있는 간담회에서 발표되었다. 회의 주최자는 한국 외교 부이고 회의에는 영주귀국 사업과 관련 한국 부처 관계자, 재외공관 외교관, 사할린 동포단체 대표 등이 비대면으로 참석했다. 사할린 측에서는 이 회의에 주유즈노사할린스크한국영사 출장소 박상태 소장, 사할린주한인협회 박순오 회장 등이 참석했다.

영주귀국 신청 접수는 6월 30일까지고, 2022년도 영주귀국 및 정착 지원 가능 대상 인원은 총 350명(2021년과 동일)이다. 영주귀국 및 정착 지원 대상자 선정은 7월에, 지원 대상자 결정 및 본인 통보는 8월에 할 예정이다.

9월에는 영주귀국 대상자를 위한 설명회를 가지고, 10월에는 영주귀국을 실행할 계획이라고 전해졌다.

영주귀국 사업 관련 설명 자료는 본지 3면(한국어), 4면과 6면(러시아어)에 게재한다.

사할린에서 '청년 기능인' 선수권대회 2차 단계 개최

제7회 '청년 기능인' 지역 선수권대회 2차 단계가 사할린주에서 열렸다. 참가자들은 <정원(CAD) 기술 디자인>(청소년), <철도교통에 운송 경로 관리>(청소년), <사진> 등 전문 기능에 따라 경기를 치른다. 올해 사할린주는 <날아다니는 로봇공학>을 새로운 전문 기능으로 제시했고 주 연평대는 16세-22세, 청소년은 12세-16세까지다.

2월 28일에는 2차 단계 폐막식이 거행되는 가운데 우승자와 수상자가 발표된다.

새고려신문

2022년 신문 구독

존경하는 독자 여러분! 2022년 새고려신문 구독신청을 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앞으로도 사할린 한민족지를 애독해 주시길 바랍니다.

1개월 구독료는 92루블리 84코페이카입니다. 신문 인덱스는 ПР575입니다. 신문은 주내 모든 우체국에서 구독할 수 있습니다. (본사 편집부)



사할린 동포들의 지난 세월의 아픔에 공감되는 시간이었습니다

임기가 끝난 주블라디보스톡 대한민국 총영사관 유즈노사할린스크 출장소 **박기동** 소장이 이번 주에 업무 인수인계를 마치고 귀국할 예정이다. 떠날 준비를 하던 무렵에 본사 **배순신** 기자는 사할린동포들에 대해 배려가 많았던 **박** 소장과의 인터뷰를 하였다.

- 3년 임기가 너무 빨리 지나간 것 같습니다. 소장님께서 사할린에서 보내신 시간이 어떠셨습니까?

- 사할린 우리 동포들의 삶과 역사를 보다 더 잘 알게 되었고 지난 세월의 아픔에 공감되는 시간이었습니다. 또한, 동포 여러분들의 따뜻한 정과 사랑도 많이 받아 참으로 보람되고 의미있는 근무지로 기억에 오래 남을 것 같습니다.

- 소장으로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신 업무는 무엇이고, 근무하시면서 기억에 남는 일 또는 행사 기획이 있다면?

- 재외공관은 기본적으로 6대 업무가 있는데 그중에 하나가 '재외동포의 보호와 육성'

입니다. 저희 출장소는 사할린 동포 사회의 발전과 지원을 최우선으로 두고 업무를 수행해 왔습니다. 출장소장 1인과 실무관 5인으로 구성된 작은 조직이라 동포분들에게 만족스러운 영사서비스를 제공하는데는 아쉬움이 많았습니다. 금년 3월부터 영사 1명이 증원되어 보다 체계적인 동포지원 업무와 영사서비스를 제공할수 있게 되어 다행입니다. 영사는 현재 주블라디보스톡총영사관에 근무 중입니다.

2019년에 국회의원 6명이 사할린을 방문해서 직접 사할린 동포들로부터 육성으로 동포들의 현실에 대해 듣고 사할린 동포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해야겠다는 결심을 하고 간 것이 기억에 납니다. 그때 한인문화센터에서 간담회에 모인 300여 명의 동포들의 열의를 보고 놀라기도 했습니다. 사실 방문한 국회의원 중 이곳을 방문하기 전에는 사할린 동포 지원법에 대해서 그렇게 적극적으로 알던 의원들이 두어 분 계셨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현장에 와서



사할린 동포들의 열의를 직접 보고 느껴서 그 법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게 된 것입니다.

행사 기획에 대해 말하자면 2020년에 한러 수교 30주년을 맞아 다양하게 4가지 행사를 개최하려고 했었는데, 아쉽게도 2가지 직접적인 대면 행사는 개최하지 못하고, 한국 관련 SNS 공모대회와 10월 9일 한글날을 계기로 한국어말하기 대회를 했습니다. 말하기 대회는 전통적으로 학생들만 대상으로 했었는데 그 해에는 출장소 지원으로 일반인들을 포함해 30~70대의 우리 동포들이 참가하고 그간 사할린의 삶에서 느꼈던 점, 한국에 대한 본인의 생각들을 자세하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때 좀

더 생생하게 동포들의 현실을 알게 되어서 기억에 납니다.

- 사할린동포들이 항상 궁금해 하는 문제는 영주귀국과 이중국적입니다. 작년에 영주귀국사업을 잘 마무리했고, 올해는 이 사업을 언제 추진할 예정이고 규모는 어떤지 궁금합니다.

- 기본적으로는 2021년도와 비슷한 일정과 규모로 진행될 예정인데 상세한 계획을 외교부 본부에서 확정하면 동포 여러분께 신속히 안내드릴 것입니다.

- 사할린 지방은 어디가보셨나요?

- 유즈노사할린스크를 중심으로 근처 도시는 모두 방문하였습니다. 홈스크와 코르사코브를 수차 가보고 중간 거리에 마카로브도 한 2-3번 가보았습니다. 조금 먼 지역으로는 토마리와 우글레고르스크, 포로나이스크의 지방한인회를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 소장님께서 사할린에 계시는 동안에 코로나 19 사태가 벌어졌는데 일하시기가 쉽지 않으셨을 것

이고, 한국 방문도 못 하신 것으로 압니다. 또한 소장님께서 사할린에서 러시아 백신을 접종하셨다고 들었습니다. 괜찮으셨는지요?

- 2019년 2월에 사할린에 부임해서 그 해 한 번 한국을 다녀오고 거의 2년반 사할린에 있었습니다. 영사가 한 명이어서 오래 자리를 비울 수 없었습니다. 방역을 위한 자가격리 기간이 있어 더 그랬습니다. 그리고 러시아 스푸트니크 V와 라이트를 모두 접종하였습니다. 부작용은 없었고 백신 접종 덕분에 최근에 코로나 19에 감염이 되었지만 가벼운 기침과 약간의 피로감 증세만 있었고 빨리 완치되었습니다.

- 다행입니다. 소장님께서 귀국 후 계획은 무엇인지요?

- 본부에 돌아가 금년 6월에 정년퇴직(공무원 정년퇴직은 60세 - 기자주)을 하게 됩니다. 여유를 가지고 앞으로 무엇을 할지 천천히 생각해보고자 합니다.

- 사할린을 떠나시는 소감과 동포들에게 전하시

고 싶으신 말씀 부탁드립니다.

- 우리 동포 분들께서 저와 저희 가족에게 너무 큰 사랑과 따뜻한 관심을 보여 주셔서 떠나려니 아쉬운 마음이 큼니다. 제 집사람(유을숙 사모님)은 자원봉사 차원에서 여성회 회원 위주로 한인문화센터 한국어·한국문화반 강사로 활동 - **기자주**도 사할린을 참 좋아하는데, 가장 큰 매력은 역시 사할린 동포분들이라고 말합니다. 팬데믹 상황으로 만나 뵙지 못하고 이 지면을 통해 인사드리는 점 양해해주시길 바랍니다. 한국에 가셔도 사할린에 대한 관심을 계속 가지고 한국과 사할린의 관계 발전에 도움을 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사할린 동포 사회의 무궁한 발전과 서로서로 돕고 협력하는 따뜻하고 인정 많은 분위기가 오래오래 이어지길 기원드립니다. 그 동안 감사했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 바쁘신 와중에도 인터뷰에 응해주셔서 감사드리고 소장님과 소장님 가족 분들의 건강과 행운을 빕니다.

이 모 저 모

<트로이츠키 스키마라톤>대회에 700여 명 참가

제24회 <트로이츠키 스키 마라톤 대회>가 2월 19일-20일 양일간 사할린주에서 전례대로 열린 가운데 돌린스크, 아니와, 스미르니흐·코르사코브·마카로브·포로나이스크·노글리키·우글레고르스크·토마리 구역들과 유즈노사할린스크·블라디보스토크·코스트로마 시를 대표하여 700명 이상의 참가자들이 모였다.

첫날 경기는 200m와 10,000m 코스에서 시합을 했고, 둘째 날에는 스키 애호가들의 장거리 코스 경주가 이어졌다. 참가자들은 자신의 신체 조건에 따라 1 km, 2 km, 15 km, 25 km, 50 km 코스를 선택해 경주에 임했다.

경기 결과에 따르면 50 km 코스에서는 각 연령대별로 이반 쿠스토브, 안드레이 유다예브, 올레그 콜모고로브, 이고리 로마넨코브, 안드레이 그린쉬테인, 마리나 체르노우소와가 1위를 차지했다. 15 km 코스에서는 이고리 자이체브와 류보브 워로즈조와가 우수한 기록을 보였고, 25 km코스에서는 막심 코사레브, 엘레나 폴라코와, 엘레나 유마에와, 엘리자베타 푸넨코와사 다른 경쟁자들보다 빨리 결승선에 도달했다.

1 km 코스에서는 다리야 자보르치코와, 니키타 부리크가 금메달을 차지했고, 2 km 코스에서는 루슬란 와히토브, 크리스티나 노위코와가 우승했다.

주최 측은 경주 참가자들을 위해 차와 이온음료, 바나나로 체력을 보충할 수 있는 테이블을 4 곳에 마련했다고 주 스포츠부가 전했다.

"Троицкий лыжный марафон" собрал более 700 участников

XXIX "Троицкий лыжный марафон" состоялся в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Традиционные старты длились два дня 19-20 февраля и собрали более 700 участников. Спортсмены представляли Долинский, Анивский, Смирныховский, Корсаковский, Макаровский, Поронайский, Ногликский, Углегорский и Томаринский районы, Южно-Сахалинск, Владивосток и Кострому.

В первый день гонки лыжники состязались на дистанциях от 200 до 10 000 метров, во второй в борьбу вступили любители длинных дистанций. Так, участникам предстояло преодолеть на выбор 15, 25 или 50 км, а также 1 и 2 км для представителей адаптивной физической культуры.

По итогам стартов лидерами в своих возрастных категориях на дистанции 50 км стали Иван Кустов, Андрей Юдаев, Олег Колмогоров, Игорь Романенков, Андрей Гринштейн и Марина Черноусова

На дистанции 15 км лучшие результаты показали Игорь Зайцев и Любовь Ворожцова. А 25 км быстрее соперников преодолели Максим Косарев, Елена Полякова, Елена Юмаева и Елизавета Пуненкова.

Золото за 1 км взяли Дария Заводчикова и Никита Бурик. А 2 км принесли победу Руслану Вахитову и Кристине Новиковой.

Для участников организовали четыре пункта питания, на которых можно было восполнить силы чаем, изотоником и бананами, сообщили в пресс-службе областного минспорта.

유즈노사할린스크 청년들을 역사 도전 게임에 초대

유즈노사할린스크 청년주도센터가 역사 도전게임(퀘스트)을 2월 27일(일) 12시에 승리 종합기념박물관에서 개최한다. 도전게임은 단체 게임으로서 참가자들이 박물관 전시물에 따라 주어지는 주제별 과제를 수행해야 한다. 암호 해독과 논리적 과제가 도전게임의 시험문제다. 도전게임에 주어진 시간은 3시간인데 주어진 모든 과제를 가장 빠르게 해결하는 팀이 우승하게 된다.

특별히 이번 도전게임에는 참가자들이 과제를 수행함에 있어서 열쇠의 일부에 대한 정보를 얻기 위해 터미널에서 사용해야 하는 특수 코드 획득도 있다. 열쇠의 일부 정보를 모두 모은 팀이 상품이 보관된 상자의 자물쇠를 열 수 있다.

도전게임 참가자들에게는 문제 해결을 위한 분석적 사고와 순발력, 속도, 팀의 활동, 역사 분야의 지식이 필요하다.

게임의 참가 대상은 14세-35세까지 누구나 참가할 수 있고, 참가 단체는 2명-4명으로 구성하여 등록해야 하며, 게임 참가는 10팀으로 한정돼 있다.

Молодёжь Южно-Сахалинска приглашают на исторический квест

Центр молодежных инициатив Южно-Сахалинска 27 февраля в 12:00 проведёт квест в музейно-мемориальном комплексе «Победа». Он представляет собой командную игру, где участникам предстоит выполнить тематические задания по экспозициям музея. Испытаниями для игроков будут шифровки и логические задачи. На прохождение квеста отведено три часа. Победит та команда, которая быстрее всех справится с заданиями.

Необычность квеста заключается в том, что за выполнение заданий участники будут получать специальные коды, которые нужно ввести в терминал для получения части ключа. Собрав все части ключа, команда сможет открыть ящик с кодовым замком, где будут храниться призы. Участникам квеста понадобится аналитическое мышление, смекалка, скорость, умение работать в команде, а также знания в области истории, которые помогут в решении заданий.

Игроками могут стать все желающие в возрасте от 14 до 35 лет. Для этого необходимо объединиться в команду от 2 до 4 человек и зарегистрироваться. Количество участников ограничено 10 командами.

모스크바에 거주하는 사할린 출신 가수, 새로운 <스타>로 진출

모스크바에 거주하고 있는 사할린 출신 가수 올리야나 체르네초와(예명 올리야나 미)의 대중가요 영상이 '2022-노와야 즈웨즈다(새로운 스타)' 티비 신규 프로그램 대회에 채택돼 참가할 예정이라고 주 정부 홍보실이 소식을 전했다.

<노와야 즈웨즈다>는 러시아 연방 85개 행정자치 지역의 대표들이 참가하는 대규모 음악 경연대회이다. 이 프로그램의 주요 목적은 국내 각 지역의 가장 재능이 넘치고 빛나는 가수를 발굴하여 세상에 드러내며, 동시에 러시아 각 지역의 다양성과 모든 아름다움을 표현하는 데 있다. 이런 기획 속에 올리야나 미는 사할린주를 대표한다.

"우리는 올리야나가 자신의 고향과 고향 주민들로부터 큰 지지를 받길 진심으로 바란다. 첫 방송 출연을 시작하면서 티비 시청자들은 SNS(에스엔에스)로 투표하여 즉시 결승에 진출하지 못할지라도 자신의 지역 출신 대표를 지지해줄 수 있다."고 주최 측이 밝혔다.

2022년 4월 9일부터 <즈웨즈다> 방송채널에서 매주 방송과 인기투표가 이뤄진다.

올리야나 체르네초와(밀로센코)는 가수이자, 작사가, 작곡가, 보컬 트레이너, '유미(UMI)'프로덕션의 음향 프로듀서이다. 2019년에는 유즈노사할린스크 '올해의 여성'대회에서 수상했고, 2012년에 홈스크 지역에서 거주했던 올리야나는 터키에서 열린 '2012-아트 패션(Art Fashion)' 국제 경연에 참가하기 위해 지역 예선을 통과하고 터키에서 세계적 가수로서 명성을 얻기 위한 경쟁을 치렀다. 이외에도 지역 및 연방 수준의 다양한 음악 경연 기획에 참가해왔다.

(8면에 계속)

사할린동포 영주귀국 및 정착지원 사업 신청 접수 절차 안내

「사할린동포 지원에 관한 특별법」의 금년도 시행에 따라 2022.3.2.(수)부터 영주귀국 및 정착 지원 사업 신청 접수가 진행될 예정이다.

신청 접수 일정 및 방법

□ 신청 접수기간 : '22.3.2.(수) - 6.30.(목) ※ 동 기간 이후 신청서류 접수 불가

□ 신청서류

※ 제출된 서류로 사실 확인이 어렵거나 추가로 확인할 사항이 필요할 경우, 별도의 서류(주민등록등본, 기본증명서, 여권사본 등) 제출 요청 가능

※ 증명서는 아포스티유를 발급받은 원본 또는 그 사본 제출(사본 제출시 원본 지참 필요)

(혼인증명서는 접수일 기준 3개월 이내 발급분)

※ 러시아 등 국외 발급 증명서는 한국어 번역본 첨부 필요(번역기관·번역자 정보 기재)

※ 접수한 서류는 반환 불가(원본 서류 보관을 희망할 경우 사본 제출 필수)

① 공통서류 : 영주귀국 및 정착 지원 신청서 1부, 사진 1매

※ 영주귀국 및 정착 지원 신청서는 신청 접수처에서 작성 가능

② 신청자격별 구분에 따른 제출 필요 서류

- 사할린동포인 경우 : 출생증명서 등 1945년 8월 15일까지 사할린에서 출생하였거나 사할린으로 이주한 한인(韓人)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 동반가족인 경우 : 혼인증명서 또는 출생증명서 등 사할린동포의 배우자, 직계비속 또는 그 배우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각 1부

□ 신청 방법 및 절차

○ 신청인은 신청 접수기간 중 신청서류를 구비, 소재지(국외/국내)에 따른 접수처(재외공관/대한적십자사)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서 제출 필요

※ 우편 접수는 불가하며, 본인 확인시 필요한 신분증 지참 필요

- (본인 신청) 신청인 본인의 방문 신청이 원칙이며, 사할린동포의 동반가족 신청 시 사할린동포의 신청 확인 및 서명 필요

※ 사할린동포와 동반가족 모두 국외 소재한 상황에서 동반가족 신청 시 사할린동포 동석 필요

※ 사할린동포는 국내, 동반가족은 국외에 소재한 상황에서 동반가족 신청 시, 재외공관의 접수 이후 대한적십자사를 통해 사할린동포의 신청 확인·서명 요청 예정

- (대리인 신청) 건강상 이유 등 신청인의 방문 신청이 불가능한 경우, 아래 서류를 지참한 제3자 대리인을 통한 신청 가능
· ① 대리 신청 사유서, ② 신청인의 위임장, ③ 신청인의 신분증 사본 ④ 대리인의 신분증, ⑤ 신청인과의 관계를 알 수 있는 공적 서류

※ 대리 신청 사유서 : 신청인의 직접 방문이 불가능한 사유를 증빙하는 서류

○ (국외 신청) 신청인 국외 소재시, 관할 재외공관에 신청서류 제출

○ (국내 신청) 신청인 국내 소재시, 대한적십자사에 신청서류 제출

□ 신청 후 유의사항

○ (사할린동포 사망시) 신청을 완료한 동반가족은 신청 후 사할린동포 사망시, 사할린동포의 사망일자가 기재된 사망진단서 즉시 제출 필요

- 신청 후 사할린동포 사망 시 원직적으로 영주귀국 대상 미해당

※ 사망진단서는 신청을 접수한 재외공관 또는 대한적십자사에 제출

○ (영주귀국) 영주귀국 및 정착 지원 대상 결정에 따라 동 사실을 통보받은 대상자는 건강상 이유 등으로 입국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지원 신청연도에 반드시 영주귀국 필요

※ 신청연도에 미입국 시 차년도 이후 재신청 필요

○ (지원 자격 박탈) △신청서류 위조, △사할린동포 사망진단서 포함 필요서류 누락, 등 신청 부적격 사유가 추후 확인된 경우, 영주귀국 및 정착 지원 대상 자격 박탈 및 지원 즉시 중단

※ 관련법에 따른 기 지급된 지원금 환수조치 가능성 불배제

자세한 내용은 주 블라디보스톡 대한민국 총영사관 유즈노사할린스크출장소 홈페이지에 게재.

<https://overseas.mofa.go.kr/ru-sakhalin-ko/index.do>

재외동포재단, 인사혁신처와 MOU 체결

- 해외 한인 인재 발굴 및 활용을 위한 전반적인 협력 등



재외동포재단(이사장 김성곤)과 인사혁신처(처장 김우호)는 해외 동포 인재 발굴 및 활용을 위한 양 기관간 전반적인 협력을 위해 2월 24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협약식에는 재외동포재단 김성곤 이사장, 정광일 사업이사, 차세대사업부 김정혜 부장, 오상후 과장, 인사혁신처 김우호 처장, 신병대 국장, 김수란 과장, 박준덕 사무관이 참석했다.

양 기관은 ▲정부 주요직위 인선 또는 공직 직무수행과 관련된 전문가 활용 필요시, 해외 한인 인재의 발굴·추천 및 활용, ▲해외 한인 인재의 성공적인 활용 사례 발굴·확산, ▲양 기관 주요사업·사례 홍보를 위한 대표 홈페이지, SNS

등 게재, ▲기타 해외 인재 발굴 및 활용을 위해 상호협력이 필요한 사항을 위해 서로 노력하기로 뜻을 모았다.

김성곤 이사장은 “해외에 각 분야에서 활약하고 있는 우리 재외동포 차세대 인재들을 적극 발굴·등용하여, 모국과 거주국간에 교류와 상생 발전 뿐만 아니라, 세계시민으로서 전 인류를 이롭게 하는 데도 큰 역할을 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재외동포재단은 전 세계 재외동포 차세대 인재를 발굴하고, 네트워크 구축을 위해서 1998년부터 세계한인차세대대회를 개최(누적 참가자 1,500여명)해오고 있으며, 작년 23차 대회에서 인사혁신처와 “정부와의 간담회” 프로그램 협업 시행을 계기로 이번 MOU를 추진하게 되었다.

[신PD의 K 리포트]

'노인을 위한 나라는 없다'?

‘뭐 이런 패륜적이고 충격적인 말이 다 있나?’ 하실 것 같습니다. 이것은 2007년 개봉한 미국 영화의 제목입니다. 마약 갱단, 경찰서를 탈출한 살인마, 마약 판매금 수백만 달러를 훔쳐서 도망다니는 시골 사냥꾼, 정년퇴직 앞둔 보안관 등등의 사람들이 등장하는 세기말적 정서의 영화입니다.

영화가 아니라 제목에 대해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이 영화를 두번 세번 정주행으로 봐도 '노인을 위한 나라는 없다'는 제목이 이해되지 않았습다. '노인을 위한 나라'가 없다면, 그 노인들은 도대체 어떻게 하라는 뜻인지? 영화의 배경이 미국인데, 어디 다른 곳으로 추방돼야 한다는 뜻인지, 도무지 짐작이 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왜 이런 제목을 붙였을까요?. 영어 원제는 'No Country for Old Men', 글자대로 해석하면 '노인을 위한 나라는 없다'가 되니 번역상 문제는 없어 보입니다. 좀더 자료를 찾아봤습니다.

이 제목의 발상지는, 19세기 아일랜드 출신의 시인 윌리엄 버틀러 예이츠가 쓴 시(詩) '비잔티움으로의 항해 (Sailing to Byzantium)' 첫 줄입니다.

That is no country for old men. The young / In one another's arms, birds in the trees /

- Those dying generations - at their song / (중략) / Caught in that sensual music all neglect / Monuments of unaging intellect. (이하 생략)

(노인들을 위한 나라는 없다. 팔짱을 낀 / 젊은이들, 나무위의 새들 /

- 죽어가는 세대의 - 노래에 따라 / (중략) / 모두들 관능적인 음악에 사로잡힌 채 /

늙지 않는 지성의 기념비를 무시하네.)

시도 영화만큼이나 난해합니다. 그런데 이 시를 몇번 반복해 읽고 해설을 학습하고 나서 다시 영화를 봤습니다. 노쇠해진 육신, 죽음에 다가선 공포감, 소외의 상실감 등이 삶에 깊이 얼룩진 '노인'이라는 현실을 벗어나, 질곡(桎梏)을 초월한 조화로운 지성의 세계로 가려는 간절함을 영화와 시가 말하고 있습니다.

어려운 얘기에서 현실로 눈을 돌려보겠습니다.

"출퇴근 시간을 지나 한가한 지하철 안. 앞에 마주보고 앉아 계시던 어르신과 우연히 눈이 마주쳤습니다. 스마트폰으로 무언가 열심히 듣고 보던 그 할아버지의 눈빛에 분노가 읽혀집니다. 괜히 시비를 걸까 두려워 자리를 옮겨야 했습니다." 30대 중반의 후배가, 종종 일어나서 대수롭지 않다는 듯, 들려준 경험담입니다.

"다음 일정까지 시간이 좀 떠서 주변 스타벅스에 갔었네. 유학시절 전공 책 놓고 몇시간씩 그 카페에서 공부하던 생각도 났고. 글로벌 커피점이라 미국 학교 앞에도 있었는데, 그 시절이 그리울 때 종종 가고는 한다네. 근데, 그날 따라 사람이 좀 많아서 자리가 부족했어. 커피를 주문하고 겨우 빈 의자를 잡고 앉았는데, 주변 젊은 친구들 눈치가 좀 불편하게 느껴졌네. 그런 불쾌한 시선이 나같은 늙은이들에게만 오는 것 같아 언짢아지더군." 정년퇴임하신 어느 교수님의 얘깁니다.

'노인 한분이 돌아가면 도서관 하나가 불에 타서 없어지는 것과 같다.'라는 아프리카 속담이 있습니다. '노인'을 지혜의 상징으로 보던 시대가 있었습니다. 유교적 규범으로 그렇게 강요된 것이었다고 해도 오랜 세월 공동체 윤리로 구성원들이 동의하면서 지켰으니 분명 타당함이 있을 겁니다.

앞서 말씀드린 영화에서 노인을 위한 나라가 없다고 했습니다. 뚜렷한 이유 없이 살인을 저지르는 자, 돈에 눈이 멀어 사랑하는 부인을 버리는 탐욕의 인간군상... 이런 부류들이 얹혀 사는 현실에 '지혜로운 사람' 노인이 발붙이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이츠가 이 상향 비잔티움으로 항해하고자 했을 겁니다. '존재의 조화'가 있는 그 곳으로요...

국가의 중대사 대통령 선거가 바로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30대 장관이 나올 것'이라거나 '청년부를 신설하겠다'는 등의 공약들이 주목받고 있는 반면, 노인 문제는 '복지 공약'의 하부 탭에 들어가 있어 잘 보이지 않습니다.

노인분들은 자신의 의자와 무관하게 시대의 아픔을 겪어내야 했던 억울함이 있습니다. 그 상실감, 허망함을 희망으로 바꿔줄 사람을 '지혜로운 노인'들이 찾습니다. 특정 세대, 일부 계층만을 치켜세우지 않는, 평평(平平)하고 탕탕(蕩蕩)하게 고루 퍼서 낮은 곳까지 살피는 사람을 원하십니다. '노인을 위한 나라'는 바로여기 대한민국에 있어야 합니다.

신원섭 KBS라디오 편성기획국장/
한국외대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부 객원교수



22 февраля 2022 г. состоялось совещание по проекту поддержки в переселении на ПМЖ сахалинских соотечественников, организатором которого стало Министерство иностранных дел Республики Корея. В онлайн-совещании приняли участие представители Красного Креста РК, заинтересованных министерств и организаций, представители дип.ведомств, руководители организаций сахалинских корейцев и т.д. Было озвучено, что прием заявлений на получение поддержки начнется 2 марта, а закончится 30 июня 2022 г. Общее количество получателей поддержки в 2022 году составит 350 человек, отбор и утверждение кандидатур на поддержку пройдет в июле-августе, в сентябре состоится разъяснительное собрание, а в октябре получатели поддержки смогут уехать на ПМЖ.

Предлагаем вашему вниманию материалы по проекту поддержки, опубликованные на сайте Южно-Сахалинской канцелярии Генерального консульства РК во Владивостоке. Редколлегия

Брифинг по проекту поддержки в переселении на ПМЖ и устройстве на начальном этапе сахалинских соотечественников и сопровождающих членов семей в 2022 году

Февраль 2022 года
Министерство иностранных дел совместно с заинтересованными организациями

I. Краткое описание проекта					
1. Содержание проекта Цель: Проект поддержки в переселении на ПМЖ и устройстве на начальном этапе сахалинских соотечественников, которые были принудительно завезены на Сахалин в период японской колонизации, но после освобождения не смогли вернуться на Родину и остались жить на Сахалине, а также сопровождающих членов их семей ~ Получатели поддержки: Сахалинские соотечественники и сопровождающие члены их семей (супруг(а), один прямой потомок с супругой(ом)) согласно Ст.2 Специального закона о поддержке сахалинских соотечественников ~ Основное содержание: Оплата *транспортных расходов, необходимых при возвращении на Родину, и расходов на устройство на начальном этапе, *расходов на содержание жилого помещения, *арендной платы за жилое помещение и пр. согласно Ст.5 Специального закона о поддержке сахалинских соотечественников. 2. Основания для реализации проекта Основание: Специальный закон о поддержке сахалинских соотечественников принятие 26.05.2020, вступление в силу 01.01.2021) ~ *Подготовка законного основания и *достижение расширения диапазона получателей поддержки по проекту поддержки в переселении на ПМЖ и устройстве на начальном этапе сахалинских соотечественников через принятие/исполнение вышеуказанного Закона - Подготовка законного основания: Впервые подготовлено законное основание для проекта поддержки в переселении на ПМЖ и устройстве на начальном этапе, осуществлявшегося после первого этапа переселения сахалинских соотечественников в 1992 году в соответствии с двухсторонней договоренностью между правительствами РК и Японии *После достижения договоренности о завершении проекта переселения на ПМЖ, проводившегося совместно правительствами РК и Японии (декабрь 2015г.), с 2016г. Правительство РК проводит данный проект единолично - Расширение диапазона получателей поддержки: (существующий) Сахалинские соотечественники 1 поколения, супруги и дети-инвалиды → (расширенный) Сахалинские соотечественники 1 поколения, супруги и один прямой потомок с супругой(ом) *До 2007 г. только сахалинские соотечественники 1 поколения могли переселяться на ПМЖ, но в связи с расширением проекта с 2008г. в проект переселения на ПМЖ включены также супруги 1 поколения и дети-инвалиды			Сахалинский соотечественник 2 поколения, переселившийся на ПМЖ	Восстановление гражданства. Особая натурализация. Упрощенная натурализация	Отличается в зависимости от способа подачи заявления
			Супруг(а) сахалинского соотечественника	Упрощенная натурализация	Сохранение
			Его ребенок <Сахалинский соотечественник 2 поколения>	Гражданство по определению. Восстановление гражданства (старше 65 лет)	Сохранение
			Сахалинский соотечественник и супруг(а) его ребенка	Упрощенная натурализация	Сохранение (при удовлетворении требованиям)

~ Введение норм предоставления гражданства по определению сахалинским соотечественникам, переселившимся на ПМЖ (внутренняя инструкция)
- Увеличение заявителей и мест подачи заявлений, конкретизация процедуры определения и подачи заявлений, систематизация определения и рассмотрения, а также последующих мероприятий, предоставление статуса пребывания супругу(е) заявителя-получателя гражданства по определению и пр.(F-1)
~ Разрешение принимать заявления на получение гражданства по определению от сахалинских соотечественников, переселяющихся на ПМЖ, в специально назначенных дипломатических представительствах(РФ и страны СНГ)
- Планируется достижение договоренности с заинтересованными органами с целью обеспечения возможности приема заявлений на получение гражданства по определению, что по положениям Закона о гражданстве было возможно только в РК, в специально назначенных дипломатических представительствах, учитывая основные цели принятия Специального закона и обращения граждан и т.д.
*Завершено установление связи электронной системы Единой цифровой административной системы(G4K) между Министерством юстиции и Министерством иностранных дел
3. Об аренде гос.жилых помещений
Планируется предоставить получателям поддержки арендное жилое помещение с хорошими жилищными условиями из пустующих государственных арендных жилых помещений по всей стране
~ При установлении получателя поддержки и желаемого района заселения(предположительно сентябрь-октябрь 2022г.) планируется приостановить прием заявлений от потенциальных жильцов арендного жилого помещения в соответствующем районе и определить незаселенные жилые помещения
*Создано Ст.5 Инструкции по обработке данных о будущих жильцах арендных жилых помещений возможно предоставление жилья в диапазоне до 5% от общего количества квартир в квартале
~ По возможности обеспечение заселения в районы, где проживают сахалинские соотечественники, либо в близлежащие кварталы с целью достижения более легкого обустройства и обслуживания жильцов и пр.
*Но т.к. число переезжающих из приоритетных мест проживания сахалинских соотечественников(Ансан, Инчхон Нонхён и т.д.) незначительно, а число новых арендных помещений недостаточно, усложняется массовое предоставление жилья
В первую очередь распределение по кварталам планируется осуществлять, максимально учитывая пожелания по заселению тех, кто подаст заявления через Красный Крест
~ Но в случае недостаточности пустых квартир в каком-то определенном районе в связи с большой концентрацией заявлений на заселение в нем, ~ распределение будет осуществляться после определения порядка первоочередности заселения. Семьям, которые по каким-то причинам не смогут получить распределение на заселение в желаемый район, планируется предоставить арендные жилые помещения в близлежащих районах
*Порядок первоочередности заселения будет определяться после обсуждения между РОО-СК и Красным Крестом
Распределение арендных жилых помещений будет осуществляться по принципу 1 семья из 2 чел. согласно нормам оплаты залога на аренду(17,7 млн.вон/1 семья) Министерством здравоохранения и благосостояния, но
~ В случае желания совместно проживать семье в составе более 3 чел., будет рассматриваться приоритетное распределение в жилое помещение площадью более 40м2 путем регулирования суммы поддержки залога на аренду
Кварталы, дома и квартиры распределяются по результатам жеребьевки
*(Способ жеребьевки) Используется функция жеребьевки(случайный отбор) жилищной системы LH, но распределение будет осуществляться с учетом приоритетной очередности граждан в преклонном возрасте и имеющих трудности в передвижении и т.д.
При заселении в арендное жилое помещение залоги на аренду будут дополняться бюджетными средствами(всего 175 семей, около 3,1млрд.вон) Министерства здравоохранения и благосостояния. Возможна оплата арендной платы(около 220тыс.вон, пристольные города 39м2) получателям пособия на содержание жилища.

4. О переселении и устройстве на начальном этапе
Выплата специального пособия – основных средств к существованию жильцам государственных арендных жилых помещений в размере 75 тыс.вон на 1 чел. ежемесячно
Оплата залога на аренду арендного жилого помещения и аванса на расходы за коммунальные услуги вновь прибывшего в страну на ПМЖ(17 700 000 вон на 1 семью из 2 чел.)
Оплата расходов на авиабилет и хозяйственный инвентарь и пр.(1 400 000 вон на 1 чел.) вновь прибывшего в страну
Выплата социальных пособий переселившимся на ПМЖ:
~ **Выплата соответствующих социальных пособий осуществляется в случае соответствия критериям получателя пособия согласно нижеуказанному законодательству**
- **Способ подачи заявления:** Подача заявления в администрацию муниципалитета (города, района, уезда) по месту жительства
- **Уведомление:** Администрация направляет уведомление о решении относительно получения пособия
1) Закон о гарантии основных средств к существованию граждан и Закон о пособии на оплату жилья: В случае соответствия льготной категории получателей основных средств к существованию, выплачивается соответствующее пособие(основные средства к существованию, пособие на мед.услуги, пособие на оплату жилья и пр.)
*Доход: После расчета оценочной суммы дохода выносится решение о выплате(не относится к признанной сумме дохода)
- Специальное пособие(арендная плата и коммунальные расходы за арендное гос.жилье) не рассчитывается по доходу

Сейчас			Изменение		
Заявитель	Получение гражданства	Второе гражданство	Заявитель	Получение гражданства	Второе гражданство
Сахалинский соотечественник 1 поколения, переселившийся на ПМЖ	Гражданство по определению	Сохранение	=>	Сахалинский соотечественник, переселившийся на ПМЖ <Сахалинский соотечественник 1 поколения>	Сохранение

(Окончание на 6-ой странице)

О Корее и корейцах

Политические партии договорились утвердить дополнительный бюджет

Две ведущие политические партии РК – правящая Демократическая партия Тобуро и оппозиционная Сила народа – договорились одобрить предложенный правительством дополнительный бюджет в размере 14 трлн вон (11 млрд 750 млн долларов). Он предназначен для выплаты компенсаций индивидуальным предпринимателям и малому бизнесу, пострадавшим от пандемии COVID-19. Договорённость достигнута в ходе встречи лидеров двух партий со спикером Национального собрания Пак Пён Соком, состоявшейся 21 февраля. После того, как на прошлой неделе сторонам не удалось сократить разногласия по поводу объёма помощи, правящая партия в одностороннем порядке провела законопроект через специальный бюджетный комитет, что вызвало резкий протест со стороны оппозиции. Однако партия Сила народа, скорее всего, поняла, что затягивание с прохождением дополнительного бюджета может иметь для неё негативные последствия на предстоящих выборах.

В карантинные правила для прибывающих из-за рубежа внесены изменения

Начиная с 21 февраля, от прибывающих в РК из-за рубежа не требуется загружать в смартфоны приложение для контроля за самоизоляцией. Как сообщили 18 февраля в центральном штабе по противодействию стихийным бедствиям, чрезвычайным ситуациям и катастрофам, данное решение принято в связи с тем, что число завозных случаев коронавируса неуклонно снижается, а число инфицированных вариантом коронавируса Омикрон растёт. Соответственно, проведено перераспределение сотрудников карантинных органов. На второй неделе января зафиксированы 2.276 ввозных случаев инфекции, а на второй неделе февраля – 941. При этом сохраняются обязательная семидневная самоизоляция граждан страны и иностранцев-резидентов, а также контроль за иностранцами с краткосрочными визами. В случае получения QR-кода при загрузке приложения для предварительного уведомления о въезде в страну, заполнять анкету о состоянии здоровья не нужно.

Работа предприятий общепита продлена, ограничения на личные встречи сохранены

Правительство РК приняло решение продлить время работы предприятий общественного питания на один час, до 22 часов, сохранив действующие ограничения на количество участников личных встреч – не более шести человек. Об этом сообщил 18 февраля премьер-министр страны Ким Бу Гём. Правила социального дистанцирования немного ослаблены несмотря на то, что суточное число новых случаев COVID-19 впервые за два года пандемии превысило 100 тысяч. Пересмотренные правила социального дистанцирования будут действовать с 19 февраля по 13 марта. Решение об ослаблении ограничений принято из-за того, что мелкие предприниматели и самозанятые жаловались на отрицательное влияние жёстких карантинных ограничений на их бизнес. Власти рассматривали вопрос об увеличении числа участников личных встреч до восьми человек, но решили сохранить текущий уровень из-за ухудшения эпидемической ситуации. Введение в действие системы вакцинных пропусков для детей и подростков до 18 лет отложено до апреля. Ким Бу Гём призвал Национальное собрание не затягивать с утверждением дополнительного бюджета в размере 14 трлн вон (11 млрд 600 млн долларов), предназначенного для помощи мелким предпринимателям, пострадавшим от пандемии. Он добавил, что правительство рассматривает план продления сроков погашения кредитов и приостановки платежей по обслуживанию долга мелких предпринимателей.

Режиссёр Хон Сан Су стал лауреатом Берлинского кинофестиваля

Южнокорейский режиссёр Хон Сан Су получил Гран-при жюри «Серебряный медведь» 72-го Берлинского кинофестиваля за свою новую картину «Фильм писательницы». Героиня картины - писательница, которая переживает творческий кризис. Встретившись с известной актрисой, у которой тоже настали не лучшие времена, она решает снять фильм. Фильмы Хон Сан Су представлены в Берлине и получают награды три года подряд. В 2020 году его фильм «Женщина, которая убежала» был удостоен приза «Серебряный медведь» за лучшую режиссуру, а в 2021 году фильм «Вступление» получил «Серебряного медведя» за лучший сценарий. Фестиваль проходил с 10 по 16 февраля в кинозалах в традиционном формате, но с сокращённой программой и соблюдением санитарных мер. В главной конкурсной программе были представлены 18 картин из 15 стран. Это полнометражные фильмы, которые не были показаны на других международных фестивалях и не выходили в прокат. «Золотого медведя» за лучший фильм удостоена работа испанского режиссёра Карлы Симон «Алькаррас».

(RKI)

Стартовала кампания по сбору одного миллиона подписей за необходимость принятия базового Закона для зарубежных корейцев

16 февраля в здании библиотеки Национального собрания Республики Корея состоялось мероприятие, ознаменовавшее начало активной кампании по сбору одного миллиона подписей в поддержку за необходимость принятия базового закона для зарубежных корейцев.

На сегодняшний день существует ряд законов, касающихся корейцев, живущих за рубежом — это «Закон о фонде для зарубежных корейцев» от 1997 года, «Закон о зарубежных корейцах» от 1999 года, включающий в себя миграционные правила для соотечественников, в который несколько раз вносились поправки, а также «Специальный закон о статусе проживания и поддержке при поселении для корёин», принятый в 2010 году.

К сожалению, на сегодняшний день данные законы не отвечают современным требованиям и не охватывают все сферы, касающиеся зарубежных корейцев.

В 1997 году впервые была сделана попытка принять базовый закон для зарубежных соотечественников, который бы определил особый статус и наделил всеми необходимыми правами, но тогда ограничились вышеуказанными законами.

Последние два года, в период пандемии, несовершенство этих законов обнажило множество проблем.

Тысячи зарубежных соотечественников столкнулись с самыми различными вопросами из-за того, что в законе не предусмотрен порядок действия в период форс-мажорных ситуаций.

Вне поля зрения оказалось множество сфер, начиная от визовых вопросов, заканчивая проблемами

мультикультурных семей.

Назрела острая необходимость не просто вносить изменения в существующие законы, а принять новый базовый Закон для 7,5 миллионов зарубежных корейцев, который станет основополагающей платформой и где будут четко определены все задачи, пункты и исполнители.

Следующим шагом после принятия данного закона будет создание отдельного министерства по вопросам зарубежных корейцев.

Это необходимо для обеспечения централизованной работы, так как сейчас вопросы зарубежных соотечественников разделены по разным ведомствам, что создаёт огромные неудобства.

16 февраля на торжественном собрании было объявлено об официальном начале проведения кампании по сбору 1 миллиона подписей за необходимость принятия базового закона для зарубежных корейцев, который станет основной законодательной платформой для 7,5 миллионов соотечественников.

Организаторами кампании выступили следующие организации: Солидарность за мир в Северо-Восточной Азии, Форум зарубежных корейцев, Движение помощи корейскому народу, Хынсадан, KIN (Корейская глобальная солидарность).

Кампанию поддержали более 90 корейских организаций, включая зарубежные, научные круги, СМИ разных стран.

Предлагаем вашему вниманию полный текст Обращения.

ПРОКЛАМАЦИЯ

(обращение Комитета по сбору 1 миллиона подписей)

Рост транснациональной миграции привёл к тому, что на сегодняшний день количество корейцев, проживающих за пределами Республики Корея, достигло 7,5 миллионов человек.

Это соотечественники, которых исторические трудности прошлых лет вынудили покинуть родную землю.

Историческая Родина не приняла их должным образом, но они не переставали любить Корею и были преданы до самого конца.

Начиная с момента борьбы за независимость в период японской оккупации, позднее, преодолев валютный кризис 1997-98г, они способствовали развитию страны, активно налаживая разносторонние связи и публичную дипломатию в различных сферах: политике, экономике, образовании, культуре и СМИ.

Не будет преувеличением, если сказать, что сегодняшняя Республика Корея существует благодаря огромному вкладу зарубежных корейцев в процветание исторической родины.

Республика Корея, которая становится передовой державой, должна, хотя бы сейчас, осознать, что на ней лежит историческая ответственность за прошлое и принять корейцев, живущих за границей, оказав им широкую поддержку.

Ранее, такие страны, как Израиль, Китай и Индия, были в аван-

гарде комплексной и систематической стратегии поддержки своих соотечественников. Однако, в Корее всё ещё действует устаревшая система поддержки соотечественников.

Общество зарубежных корейцев быстро меняется, делая ставку на будущие поколения. На сегодняшний день в Корею проживает 1 миллион соотечественников с иностранным гражданством, а также до сих пор вне поля зрения остаются наши соотечественники без гражданства, которые ждут защиты от родины. Они беззащитны не только перед кризисом глобальной пандемии, но и перед различного рода опасностями и преступлениями.

Таким образом, постоянно увеличивается объём работы по вопросам зарубежных соотечественников, но разработка и реализация данной политики и стратегии разделены по разным министерствам, что вызывает много неудобств и проблем. Отсутствует правовая основа для создания организации по разработке и реализации общей политики в отношении зарубежных корейцев.

Фонд зарубежных корейцев, созданный как некоммерческая организация при Министерстве иностранных дел в конце 1990-х годов, а также «Закон о зарубежных соотечественниках», который был принят с целью «Обеспечения правового статуса зарубежных корей-

цев, въезжающих и выезжающих из Кореи», уже не могут справиться с актуальными вопросами.

Назрела острая необходимость усовершенствования законодательной базы, учитывая постоянно меняющуюся ситуацию в современном мире, для удовлетворения разнообразных потребностей наших соотечественников в каждом регионе.

Все вышеуказанные трудности связаны с отсутствием базового закона, определяющего основные цели и направления политики в отношении зарубежных корейцев. Таким образом, существует высокий национальный спрос на принятие «Основного закона о зарубежных корейцах», который должен содержать положения о создании и функционировании независимой организации, отвечающей за предоставление комплексных услуг и обеспечение политики систематической поддержки.

В связи с этим, мы призываем Национальное собрание мобилизоваться и принять участие в решении этих актуальных проблем и с сегодняшнего дня заявляем, что мы начинаем кампанию по сбору одного миллиона подписей для принятия «Основного закона о зарубежных корейцах».

Отдать свой голос можно, пройдя по ссылке: <https://forms.gle/stafV444USk9pttV6>, https://youtu.be/wTX9oBg_UCE

Подпишись на газету "Сэ коре синмун"!

Продолжается подписка на 1-е полугодие 2022 года. Только у нас самые свежие, эксклюзивные и достоверные новости и публикации из жизни корейского сообщества Сахалина, а также новости из Южной и Северной Кореи.

Стоимость подписки на месяц — **92 руб. 84 коп.** Индекс газеты: **ПР575**

Газету можно выписать во всех отделениях связи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Полигранд"

Партнер, созданный для Вас!

Тел.: 42-49-54,
42-49-89

Брифинг по проекту поддержки в переселении на ПМЖ и устройстве на начальном этапе сахалинских соотечественников и сопровождающих членов семей в 2022 году

Февраль 2022 года

Министерство иностранных дел совместно с заинтересованными организациями

(Окончание. Начало на 4-ой странице)
*Имущество: Сумма превышения(включая автомобиль) по базовому имуществу не учитывается в качестве денежного эквивалента имущества
=> **Сахалинские соотечественники (1 поколение)**
- *Выплата соответствующего вида пособия согласно Закону о гарантии основных средств к существованию граждан, *решение по нормам оценочной суммы дохода
=> **Сопровождающие члены семьи сахалинского соотечественника (2 поколение)**
*При получении гражданства применяются такие же исключения, как относительно сахалинских соотечественников
- После прибытия в страну до получения гражданства(натурализации) выплачивается соответствующий вид пособия согласно Закону о гарантии основных средств к существованию граждан, но учитываются условия проживания в РК, необходимые для натурализации; гарантируется максимум в течение 3 лет
*Учитывая период адаптации в стране, для получателей средств к существованию в течение 3 лет откладывается применение условий по участию в частном бизнесе
*При подтверждении факта, что гражданин по истечении 3 лет не работает, не смотря на трудоспособность, он признается в качестве условного получателя пособия, как и простые получатели пособия
*[Для справки] Критерии отбора получателей пособия основных средств к существованию в 2022 году и средний доход (Нормы отбора получателей пособия в 2022г.)
(Ед.измерения: вона)

Кол-во членов семьи Категория	Семья из 1 чел.	Семья из 2 чел.	Семья из 3 чел.	Семья из 4 чел.
Получатель осн.средств к существованию (30% ср.дохода)	583,444	978,026	1,258,410	1,536,324
Получатель пособия на мед.услуги (40% ср.дохода)	777,925	1,304,034	1,677,880	2,048,432
Получатель пособия на жилье (45% ср.дохода)	894,614	1,499,639	1,929,562	2,355,697
Получатель пособия на образование (50% ср.дохода)	972,406	1,630,043	2,097,351	2,560,540

(Средний доход в 2022г.)

(Ед.измерения: вона)

Кол-во членов семьи Категория	Семья из 1 чел.	Семья из 2 чел.	Семья из 3 чел.	Семья из 4 чел.
Средний доход	1,944,812	3,260,085	4,194,701	5,121,080

2) **Закон о социальной пенсии:** В случае, если пожилой гражданин в возрасте старше 65 лет по результатам оценки дохода и имущества относится к лицам с уровнем ниже определенного, выплачивается социальная пенсия

3) **Закон о благосостоянии инвалидов:** В случае, если среди зарегистрированных инвалидов с тяжелыми заболеваниями в возрасте старше 18 лет есть те, чей уровень дохода ниже определенного, выплачивается пенсия по инвалидности

5. [Для справки] Поддержка оставшихся в местах проживания сахалинских соотечественников

□ **Проект посещения Родины сахалинскими соотечественниками 1*поколения**
*Граждане корейской национальности, которые родились на Сахалине, либо переселились на Сахалин до 15.08.1945г.

*В случае, если сахалинский соотечественник умер, не поучаствовав в данном проекте, поддержка его детей(сахалинские соотечественники 2 поколения)
~ Экскурсии, связанные с корейской традиционной культурой, посещение родственников, программа мед.обследования и пр.

□ **Проект посещения Родины сахалинскими соотечественниками 2-3 поколения**
~ Для решения проблемы разделенных семей в связи с переселением сахалинских соотечественников на ПМЖ приглашение в РК членов семей 2-3 поколения, проживающих в РФ и странах СНГ

III. План проведения

1. Годовой план

Принимая во внимание проект поддержки в переселении на ПМЖ и устройстве на начальном этапе и вынесение решений о получателях поддержки

~ Прием заявлений(02.03.2022-30.06.2022) → МИД: Отбор получателей поддержки(июль 2022г.) → МИД: вынесение решения о гражданах, которые могут получить поддержку в переселении на ПМЖ и устройстве на начальном этапе, а также информирование заявителей(август 2022г.)

Проведение брифинга для получателей поддержки в переселении на ПМЖ и устройстве на начальном этапе (предварительно сентябрь 2022г.)

~ Сообщение информации о поддержке Правительства РК и о быте(арендные жилые помещения и т.д.) в стране для подтвержденных к переселению на ПМЖ граждан на 2022 год

Осуществление поддержки в переселении на ПМЖ и устройстве на начальном этапе
~ Переселение на ПМЖ в октябре 2022г.

*Организация базы помощи по адаптации к жизни в РК и обустройству после переселения на ПМЖ(октябрь - декабрь 2022г.)

~ Мед.осмотр, помощь в обустройстве, подача заявления на гражданство по определению и получение гражданства

Параметр	Период (предв.)	Содержание
Предварительная подготовка	Февраль 2022 г.	Брифинг по проекту поддержки в переселении на ПМЖ и устройстве на начальном этапе
	02.03-30.06.22	Прием заявлений(Красный Крест РК, дип.представительства)
	Июль	Отбор получателей поддержки Комиссией (предварительно)
	Август	Информирование о решении(МИД), изучение спроса на арендное жилье
	Сентябрь	Брифинг для получателей поддержки
Переселение на ПМЖ	Октябрь	Переселение на ПМЖ (Красный Крест)
Помощь после переселения	Октябрь	Мед.осмотр
	Октябрь~Ноябрь	Регистрация по месту жительства, подача заявления на получение пособий
	Октябрь~Декабрь	Размещение базы помощи
	Ноябрь~Декабрь	Помощь в обустройстве, подача заявления и получение гражданства по определению(заинтересованные органы)

*Вышеуказанный план может измениться

2. Период и способ приема заявлений

Период приема заявлений: 02.03.2022 – 30.06.2022 *После указанного периода документы не принимаются

Список документов для подачи заявления:

*В случае, если сложно установить факт по предоставленным документам, либо необходимо выявить дополнительные факты, может потребоваться предоставить другие документы(Свидетельство о регистрации гражданина, Свидетельство об основных данных, копия паспорта и т.д.)

*Предоставить апостилированные оригиналы свидетельств, либо копии документов (в случае предоставления копии, необходимо иметь при себе оригинал). Свидетельство о заключении брака должно быть выдано не ранее, чем за 3 месяца до подачи документов

*К документам, выданным в РФ и др. странах, необходимо приложить перевод на корейский язык(с указанием информации о переводческой компании/переводчике)

*Принятые документы не возвращаются(при желании сохранить оригинал, обязательно предоставить копию)

1) **Общие для всех документы:** Заявление на получение поддержки 1 экз., фотография 1 экз. *Заявление на получение поддержки можно заполнять в месте приема заявлений

2) **Документы, которые необходимо предоставить в зависимости от статуса заявителя**

- Сахалинские соотечественники: Свидетельство о рождении, либо другие документы, подтверждающие рождение на Сахалине или факт, что заявитель является гражданином корейской национальности, переселившимся на Сахалин до 15.08.1945 года – 1 экз.

- Сопровождающие члены семей: Свидетельство о браке или Свидетельство о рождении, другие документы, подтверждающие, что лицо является супругой(ом), прямым потомком сахалинского соотечественника или его(ее) супругой(ом) – 1 экз.

Способ и процедура подачи заявления:

~ В течение периода приема заявлений заявитель собирает пакет документов и лично подает их в центр приема документов(дип.представительство, Красный Крест) по месту нахождения(за рубежом, в стране)

*Принимать документы через почтовые услуги не осуществляется, для подтверждения личности необходимо предъявить удостоверение личности

- **Подача заявления лично:** Прием документов осуществляется при личном посещении заявителя. При подаче заявления сопровождающим членом семьи сахалинского соотечественника, обязательно личное присутствие сахалинского соотечественника и его подпись

*В случае подачи заявления сопровождающим членом семьи в обстоятельствах, когда сахалинский соотечественник и сопровождающие члены семьи находятся за пределами РК, обязательно совместное присутствие сахалинского соотечественника

*В случае подачи заявления сопровождающим членом семьи в обстоятельствах, когда сахалинский соотечественник находится в РК, а сопровождающие члены семьи находятся за пределами РК, после приема документов в дип.представительстве планируется запросить подтверждения и подписи заявления от сахалинского соотечественника через Красный Крест

- **Подача заявления представителем:** В случае невозможности личной подачи документов заявителем по состоянию здоровья и т.д., можно подать заявление через представителя(3-е лицо) при наличии следующих документов:

1) Объяснительная для подачи заявления через представителя, 2) Доверенность от заявителя, 3) Копия удостоверения личности заявителя, 4) Удостоверение личности представителя, 5) Официальные документы, подтверждающие отношения между заявителем и представителем.

*Объяснительная: Документ, подтверждающий причину невозможности личного посещения заявителя

- **Подача заявления за рубежом:** Если заявитель проживает за рубежом, он предоставляет пакет документов в соответствующее дип.представительство

Уведомление

Уведомление о получателе поддержки в переселении на ПМЖ и устройстве на нач.этапе

Уведомление

Уведомление о получателе поддержки в переселении на ПМЖ и устройстве на нач.этапе

Уведомление

Уведомление о получателе поддержки в переселении на ПМЖ и устройстве на нач.этапе

Уведомление

Уведомление о получателе поддержки в переселении на ПМЖ и устройстве на нач.этапе

Уведомление

Уведомление о получателе поддержки в переселении на ПМЖ и устройстве на нач.этапе

Уведомление

Уведомление о получателе поддержки в переселении на ПМЖ и устройстве на нач.этапе

Уведомление

Уведомление о получателе поддержки в переселении на ПМЖ и устройстве на нач.этапе

Уведомление

Уведомление о получателе поддержки в переселении на ПМЖ и устройстве на нач.этапе

Уведомление

Уведомление о получателе поддержки в переселении на ПМЖ и устройстве на нач.этапе

Уведомление

Уведомление о получателе поддержки в переселении на ПМЖ и устройстве на нач.этапе

Уведомление

Уведомление о получателе поддержки в переселении на ПМЖ и устройстве на нач.этапе

Уведомление

Уведомление о получателе поддержки в переселении на ПМЖ и устройстве на нач.этапе

Уведомление

Уведомление о получателе поддержки в переселении на ПМЖ и устройстве на нач.этапе

Уведомление

Уведомление о получателе поддержки в переселении на ПМЖ и устройстве на нач.этапе

Уведомление

Уведомление о получателе поддержки в переселении на ПМЖ и устройстве на нач.этапе

Уведомление

Уведомление о получателе поддержки в переселении на ПМЖ и устройстве на нач.этапе

Уведомление

Уведомление о получателе поддержки в переселении на ПМЖ и устройстве на нач.этапе

Уведомление

주최 |  교육부
국립국제교육원

주관 |  국립공주대학교
Kongju National University

2022 재외동포 국내교육과정 모집안내

교육부 국립국제교육원에서 주최하는
재외동포 맞춤형 교육과정
재외동포 국내교육과정(K-HED)을 선택하세요!

특전

국가장학금
국립국제교육원 장학금재외동포
국내교육과정
국가장학금

- 대상: 재외동포 국내교육과정 신청자 중 공관 추천을 받은 재외동포
- 선발기준: 재외공관 추천자를 대상으로 학업의지, 발전 가능성, 가정형편, 독립유공자 후손 여부 등을 고려하여 '장학위원회' 심의·선발
- 지원내용: 신청과정(1개 과정) 교육경비 전액, 원거리 국가 장학생 왕복항공료 70%
 - * 일본, 중국, 러시아 극동지역(연해주, 사할린 등), 동남아시아 국가는 항공료 지원 제외
 - * 독립유공자 후손이 장학생으로 선정 시 교육경비 및 항공료 전액 지원
- 선발인원: 연 200명 내외

※ 모집 시기별 장학금 지원·선발 현황에 따라 과정별 장학 인원 조정 가능

※ 국가 장학금의 경우 수료를 하지 못하거나 학교 규칙 위반 등으로 징계를 받을 경우 장학금 선정이 취소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장학금을 모두 반납하여야 함

원격교육 수료 특전

원격교육
수료 특전

1. 원격교육 수료 기준 충족 시 수료증 발급
2. 수료 후 1년 이내 재외동포 국내교육과정 초청교육 지원 시, 국가장학생 우선 선발

국립공주대학교 한민족교육문화원

주소 ▷ 우) 32560 충남 공주시 우금티로 753(옥룡동) 공주대학교 옥룡캠퍼스

전화 ▷ +82-41-850-6031 (일본어, 중국어, 영어, 러시아어 상담 가능)

FAX ▷ +82-41-850-6039

E-mail ▷ hansaram@kongju.ac.kr (국립공주대학교 한민족교육문화원)

홈페이지 ▷ www.niied.go.kr (국립국제교육원) hansaram.kongju.ac.kr(국립공주대학교 한민족교육문화원)

Instagram : www.instagram.com/khed_niied

Facebook : www.facebook.com/knuhansaram

Youtube : www.youtube.com/user/KNUhansaram

모집일정 및 지원방법

구분	초청교육						원격교육				
과정명	대학수학준비과정		한국이해과정				원격교육과정				
	봄(블렌딩교육)	가을	봄	여름	가을	겨울	봄	여름	가을	겨울	
교육기간	2022.4.1. ~ 8.25. 원격	2022. 9. 1. ~ 2023.1.26.	2022. 5. 3. ~ 6. 27.	2022. 7. 1. ~ 8. 25.	2022. 9. 1. ~ 10. 31.	2022.12.1. ~ 2023.1.26.	2022. 4. 1. ~ 4. 29.	2022. 7. 1. ~ 7. 29.	2022. 9. 1. ~ 9. 29.	2022.12.1. ~ 12. 29.	
	2022. 4. 1. ~ 4. 29.										
	초청 2022. 5. 3. ~ 8. 25.										
교육인원	40명 내외	40명 내외	40명 내외	40명 내외	40명 내외	40명 내외	제한없음				
지원자 접수기간	2022. 2.14.~3.18.	2022. 5. 2. ~ 6. 17.	2022. 2.14. ~ 3. 18.	2022. 3. 19. ~ 4. 29.	2022. 5. 2. ~ 6. 17.	2022. 8. 22. ~ 9. 30.	2022. 2.14. ~ 3. 18.	2022. 3.19. ~ 4. 29.	2022. 5. 2. ~ 6. 17.	2022. 8. 22. ~ 9. 30.	
	[접수 시 유의사항] * 공관별 접수마감일이 다를 수 있습니다. 반드시 지원 공관에 접수 마감일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과정 복수 신청은 제한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비자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경우 신청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 원격교육과 복수 신청이 가능합니다.						[접수 시 유의사항] * 원격교육 접수는 공주대학교에 직접 접수해야 합니다. (지원서 추천란 생략 가능) * 초청교육과 복수 신청이 가능합니다.				
	3,010,000원						3,475,000원	1,390,000원	1,390,000원	1,390,000원	1,390,000원
교육경비	* 교육비, 숙박비, 식비 포함 * 국가장학생으로 선발될 경우 교육경비 전액, 항공료 70% 지원 ※항공료는 일부 국가 제외										
	[초청교육 시 유의사항] * 입국 시 7일 자가격리를 원칙으로 함(원격교육 운영) * 2021년 원격교육 수료생은 국가장학생 우선 선발 ※수로증 사본 제출 필수 * 입학이 허가된 연수생 전원 기숙사 입사 및 단체 급식을 원칙으로 함 * 기숙사 입사 일수가 초과될 경우, 기숙사비 및 식비가 추가됨 * 입학포기 및 자퇴 등의 사정으로 수료하지 못할 경우 교육경비 반환 내부 지침에 따라 반환 처리함										
참여자격	초청교육	공통	코로나19 예방접종 완료자에 한함								
		대학수학준비과정 (진학집중반)	거주국에서 12년 이상 정규교육을 이수하고(동등 학력 인정) 국내 대학(원) 진학을 목표로 하는 재외동포로서 공관장의 추천을 받은 자								
		대학수학준비과정 (한국어집중반)	거주국에서 12년 이상 정규교육을 이수하고(동등 학력 인정) 한국어 고급 능력 신장을 목표로 하는 재외동포로서 공관장의 추천을 받은 자								
	원격교육	한국이해과정	거주국에서 초등학교 이상을 졸업한(동등 학력 인정) 만12세 이상 재외동포로서 공관장의 추천을 받은 자								
제출서류	초청교육	①지원서(소정양식) ②수학계획서(소정양식) ③개인정보수집동의서(소정양식) ④최종학교 졸업(예정)증명서 ⑤최종학교 성적증명서 ⑥재외동포 증명 서류 ⑦연속복사본 ⑧독립유공자 후손 증명, 가족증명(해당자) ⑨장학 지원 관련 증빙(해당자) ⑩코로나19 백신접종 증명서 ※ 모든 제출서류는 영문 발급 원칙. 영문 발급이 어려운 경우 원본과 함께 한글 또는 영문으로 번역하여 제출 ※ 최종학교 졸업(예정)증명서 및 성적증명서는 아포스티유 확인 또는 영사확인을 받아 제출									
	원격교육	①지원서(소정양식) ②수학계획서(소정양식) ③재외동포 증명 서류 ④개인정보수집동의서									
	지원서 교부 및 접수처	초청교육	지원서 교부 및 접수처 : 거주국 대한민국 재외공관 (대사관 / 총영사관), 한국교육원 ※ 일본의 경우 재일본대한민국민단 접수 가능								
	원격교육	지원서 교부 : 국립국제교육원 홈페이지 ▶ www.niied.go.kr 국립공주대학교 한민족교육문화원 홈페이지 ▶ hansaram.kongju.ac.kr 접수처 : 국립공주대학교 한민족교육문화원 ▶ hansaram@kongju.ac.kr									
기타	· 재외동포 국내교육과정 홍보영상 · 재외동포 국내교육과정 원격교육 소개영상						www.youtube.com/user/KNUhansaram				



※ 상기 과정은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추가사항: 초청(한국에서 진행하는 국내교육과정) 신청자는 코로나19 백신(스푸트니크 포함) 3차까지 접종 완료한 사람 대상이라고 주 최측이 알렸다.

궁금한 것은 교육원에 전화 문의나 방문 상담 요망.

사할린한국교육원

СТОМАТОЛОГИЧЕСКАЯ
КЛИНИКА "РАДИКС"

Сделай
свою улыбку
красивой!!!



Тел.: 50-00-50;
43-31-31

Реклама

КУПИ ДИВАН - ПОЛУЧИ ПОДАРОК!

РАССРОЧКА

ул. Украинская, 58, тел.: 77-77-00

이 모 저 모

(2편의 계속)

Сахалинка, живущая в Москве, намерена стать новой «звездой»

Сахалинская исполнительница популярных песен Ульяна Чернецова (творческий псевдоним Ульяна Ми), живущая сейчас в Москве, примет участие в новом телевизионном конкурсе «Новая Звезда - 2022», сообщает пресс-служба регионального правительства со ссылкой на организаторов конкурса.

«Новая Звезда» — это масштабное музыкальное состязание, в котором принимают участие представители 85 субъектов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Главная цель проекта - найти и показать миру самых талантливых и ярких вокалистов из разных частей страны, и вместе с тем отразить всю красоту и многообразие каждого из регионов России. На проекте Сахалинскую область представляет Ульяна Ми.

- Мы очень надеемся, что Ульяна получит максимальную поддержку со стороны своего родного края и его жителей. Ведь, начиная с первого эфира программы, телезрители путём СМС-голосования смогут поддерживать представителей своих регионов в случае, если они не прошли в финал, - убеждены организаторы конкурса. Эфиры и голосования будут проходить еженедельно, с 9 апреля 2022 года на телеканале «Звезда».

Ульяна Чернецова (Милошенко) - певица, автор, композитор, вокальный тренер, sound-продюсер продюсерской компании «UMI». В 2019 году она стала лауре-

атом конкурса «Женщина года» в Южно-Сахалинске. В 2012 году Ульяна, будучи тогда жительницей Холмска, прошла региональный этап отбора для участия в международном конкурсе «Art Fashion-2012» в Турции, где боролась за звание лучшего вокалиста мира. Принимала участие в различных музыкальных проектах как регионального, так и федерального уровня.

Сахалин에서 파르후트지노브를 추모하는 스키 마라톤 개최

이고리 파르후트지노브 전 сахалин 주지사를 추모하는 제 23회 국제 сахалин 스키 마라톤대회 등록이 진행되고 있다. 현재까지 러시아의 각 지역에서 온 약 200명의 사람들과 체코 출신의 스키 선수도 신청서를 제출했다.

전례대로 스키 마라톤은 3월 6일(일) 유즈노сахалин스크와 코르사코브 지역의 레сно예 마을에서 개최할 예정이다. 참가자들에게는 연령과 훈련 수준에 따라 스키 마라톤의 5개 코스가 제시된다.

10세 이하의 아동은 1km코스에서 경주, 11세-18세 남자와 11세-18세 여자는 5 km 코스에서 경주하고, 성인 남자와 여자에게는 하프마라톤(30 km), 마라톤(50 km)에 참가를 권한다. 스키 마라톤의 출발점은 오후 10시에 해안에서 출발하여 체호브산 정상 부근의 수수나이스키 산맥을 지나 유즈노сахалин스크에서 종료된다.

해당 сахалин 스키 마라톤대회가 23번째 열리는 가운데 매

해 이 대회에 500여 명이 이상이 참가하고 있다. 참가자 중에는 일본, 한국, 중국, 호주, 뉴질랜드, 프랑스, 벨기에, 영국을 비롯한 여러 국가들의 스키 선수들도 있다고 сахалин주 체육부가 전했다.

На Сахалине пройдет лыжный марафон памяти Фархутдинова

Продолжается регистрация на XXIII международный сахалинский лыжный марафон памяти губернатора Игоря Фархутдинова. На сегодняшний день свои заявки уже подали около 200 человек из разных регионов России, а также лыжники из Чехии.

Марафон традиционно пройдет в Южно-Сахалинске и селе Лесном Корсаковского района 6 марта. Участникам предлагают пять вариантов прохождения марафона, в зависимости от возраста и уровня подготовки.

Так, дети 10 лет и младше попробуют свои силы в гонке на 1 км. Мальчики от 11 до 16 лет и девочки от 11 до 18 побегут 5 км.

Мужчин и женщин приглашают поучаствовать в полумарафоне (30 км) и марафоне (50 км).

Марафон стартует от побережья Охотского моря, пролегает через Сусунайский хребет, близ пика Чехова и завершается в Южно-Сахалинске.

Предстоящий Сахалинский лыжный марафон пройдет в 23-й раз. Ежегодно в нем принимают участие больше 500 человек, в том числе лыжники из Японии, Кореи, Китая, Австралии, Новой Зеландии, Франции, Бельгии, Великобритании и других стран, сообщает пресс-служба министерства спорта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Сахалин주 언론기관 자료에서)

Реклама

SAKH.COM • КРАСОТА И ЗДОРОВЬЕ

Попасть к врачу просто!

Врачи:

- Терапевт
- Гастроэнтеролог
- Хирург
- Невролог
- Гепатолог
- Эндокринолог

А также:

- Анализы
- МРТ
- Узи
- Рентген



Запишитесь на прием
med.sakh.com



Редакция не несет ответственности за содержание объявлений и рекламных материалов.

Рукописи не рецензируются и не возвращаются. Мнение редакции не всегда совпадает с мнением авторов.

광고의 내용에 대해서 신문사가 책임을 지지 않음.

Издатель:
АНО «Редакция газеты
«Сэ корё синмун»
(Новая корейская газета)

Гл. редактор Бя В.И.
с.з. (주필) 배 워토리아

Учредители газеты:
автономная некоммер-
ческая организация
«Редакция газеты
«Сэ корё синмун»,
Правительство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Адрес издателя и редакции: 693020
г.Южно-Сахалинск, ул. Чехова, 37
Телефон/факс: 43-59-80,
43-72-94, 43-67-85
E-mail: skr@sakhalin.ru
http://cafe.naver.com/sekoreasinmun.

Отпечатано в ОАО
«Сахалинская областная
типография»,
ул. Дзержинского, 34
Время подписания в печать:
По графику - четверг 16-00
Фактически - четверг 21-00

Издаётся с 1 июня
1949 года.
Выходит по
пятницам
50 раз в год.
Индекс ПР575
Тираж 1100 экз.

Газета зарегистрирована Управлением
Федеральной службы по надзору
в сфере связи, информационных
технологий и массовых коммуникаций
по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Свидетельство о регистрации СМИ
ПН № ТУ65-096 от 22 сентября 2011 г.